

속에서 모두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각종 강제적인 수단을 조장(助長)하게 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 땅 · 사람과 싸우는 그런 정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신에 대한 신앙을 타파하고 무신론을 기반으로 삼게 했다. 이 과정은 백여 년을 거쳤다. 당시 이 일을 할 적에 최후 일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서게 된 것도 결국 그리 영예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파리코뮌(巴黎公社)은 한 무리 사회 망나니들의 반역이었다.

이건 내가 중공사당(中共邪黨)을 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자신 역시 우리는 름펜 프롤레타리아(流氓無產者)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 ‘문화대혁명’에서 이론을 학습할 때 이 문제를 담론한 적이 있다. 이 사회 름펜은 적대적 모순(敵我矛盾)인가 아니면 인민내부 모순인가 하는 말이었다. 이 문제를 토론할 때에 어떤 사람은 름펜은 적대적 모순으로 상승될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은 원인은 파리코뮌이 바로 름펜 봉기인데 그것이 우리 중공사당의 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담이 아니었다. 왜냐하

法輪大法

二零零三年元宵節講法

2003년정월대보름설법

李洪志

류의 어느 한 민족이 세계에서 영웅으로 자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神)이 그들에게 준 영예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로 인해 또 신을 박해한다면 신은 영예를 회수할 것이며 아울러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때문에 역사상 구세력은 장래의 정법에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 또한 당시의 기독교 신도들이 마난(魔難) 중에서 죄업을 없애고 신이 되는 위덕을 세우는 이 하나의 문화를 남기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은 네로라는 사람을 선택해 로마의 왕이 되게 했는데, 사람의 도덕을 파괴하고 아주 많은 어리석은 일과 나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도들을 박해하는 가장 악독한 일을 했다. 이로써 강성한 로마제국은 이때부터 몰락했다.

구세력은, 오늘날 정법 중의 대법제자를 상대하려면 그 네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더욱 사악하고 어리석으며 파렴치한 자를 찾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이 인간 세상에서 널리 전해지기 전에 하나를 만들어 내어 장래 대법에 사용하도록 해야 했다. 이것은 또한 반드시 쓸모 있는 그런 정도에 도달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공사당(中共邪黨)이다. 그것들은 그것을 만들었고, 한 단계의 역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하여금 강제적인 통치 경험을 쌓도록 했고, 그것들로 하여금 계속되는 위기

국내에 가서 말할 것이며 그들의 친지와 친구들에게 말할 것인즉,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매스컴이다. 그들이 대법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되고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은 모두 돌아가서 이런 형세를 말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정부 관리로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직위를 상관하지 말라. 그해에 사부가 이 대법을 전할 때도 사람만 보았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았고,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도 보지 않았다. 또한,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으므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마음만 보았다. 당신은 그를 무슨 높은 관리로 여기지 말라. 당신이 그의 명(命)을 구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속인 여기의 직업에 불과할 따름이다. 오늘 그에게 벼슬을 하라고 하면 그는 관리이지만, 내일 그에게 못하게 하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이러한 것을 보지 않는다.

제자: 무엇 때문에 우주 중의 구세력은 인간 세상에 두가지 전혀 같지 않은 사회체계를 배치했습니까?

사부: 이 문제를 말하자면 굉장히 크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각도에서 간단히 말해주고자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천 년 전 로마제국은 대단히 강대했다. 사실 인

二零零三年元宵節講法

2003년정월대보름설법

李洪志

2003년 2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미국서부법회

한다면 당신들은 이미 모두 했고, 실천 중에서도 모두 잘 했다. 잘하고 못 하는 그것은 대법제자의 일이고, 세상 사람 그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은 그의 문제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서, 사실 한 무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도 구원할 수 없다. 당신들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국내에 전화를 하는 중에서, 인터넷 중에서,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구도(救度)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도하도록 해야 한다.

진상을 알리는 중, 그 신분 여하에 상관하지 말고 어떠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선 그들은 사람이며, 모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그가 무슨 사업을 하든, 우선 그에게는 장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 대법제자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내가 생각하던 사람의 명백한 일면이 곧 표현되어 나올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대륙과 얽히고설킨 관계가 있다. 모두 중국에 친척 친지가 있으며 많은 사람이 늘 오가고 있다. 그들은 대법의 국제적인 형세를 보았기에

2003년정월대보름설법

李 洪 志

2003년 2월 15일

로스앤젤레스 미국서부법회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선양(瀋陽) 전체 대법제자들을 대표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박수) 국내 수련생들의 정황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제자: 청두(成都)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베이징(北京)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박수) 저희가 상하이(上海) 대법제자들을 대표해 사부님께 문안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박수) 우리는 인사말을 하지 말도록 하자. 왜냐하면 명후이왕(明慧網)에서 사부에게 문안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이다.(박수)

제자: 저희는 사업상 늘 일부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접촉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들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을 더욱 잘할 수 있습니까?

사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

(장시간 박수) 여러분 앉읍시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회에 내가 오리라는 것을 안 것 같다. 여러분은 모두 영통(靈通)해졌고 수련 중에서 당신들도 갈수록 신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박수) 나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정법의 상황, 그리고 나의 정황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정법의 진전과 수련함에 따라 수련생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장소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우주전반 정법의 세찬 흐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오늘 또 다른 한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정법의 형식을 논술하고자 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주는 아주 방대하기로 크기를 가늠할 방법이 없다. 이는 사람의 계산방법이 아니라 신의 방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말했다. 무량한 중생 누구도 지구가 얼마나 많은 분자로 구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

지만 매 하나의 입자는 모두 생명이다. 그러면 우주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가. 많기로 계산할 방법이 없다. 천체(天體)는 얼마나 큰가. 당신들의 상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단지 한 작은 천체입자 범위에 불과할 뿐이다. 방대한 우주는 생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층차 역시 헤아릴 방법이 없는바, 신(神)으로서 말한다 해도 무량(無量)한 것이다. 매우 높은 층차의 왕(王)과 주(主)의 관념으로도 모두 이와 같은 인식이다. 그래서 후기 설법 중에서 나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말해 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높은 층차로 갈수록, 그런 방대한 생명과 그런 방대한 공간은 더욱 방대하여 형용할 방법이 없다. 위의 한 생명의 체적이 그 아래의 모든 우주를 초월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크다. 정법 이 일을 함에, 20%의 구(舊) 우주의 생명이, 정법 중에서 그것들이 하려하는 그 일체의 일에 참여하고자 배치되었으며, 각개 층차마다 한 무리의 생명들이 직접 이번 정법에 참여했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참여가 곧장 이번 정법에 정말 마장(魔障)이 되고, 그것들의 참여가 정법 전반에 거대한 장애를 조성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부님께서는 자

당신들이 해야 할 바를 잘하도록 하라. 기회와 인연은 얻기 힘들다! 이 일체를 소중히 여기라.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마음이든 일어나면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중도에서 휘멸되게 할 것이다! 어떠한 마음이든 다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며, 당신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도록 하라.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휘황한 일체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박수)

오늘 오전 나는 이만큼 말하겠다.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오후에 또 당신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 해답해 주겠다.(장시간 박수)

나는 곧 이만큼 말하겠다. 여러분 감사하다.(박수)

생각해 보니 아마 99년 7·20 이후부터는 법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이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열렬한 박수) (제자: 예.) 그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문적으로 문제에 해답을 해 주겠다.(박수) 당신들은 오랫동안 당신들 개인 수련 중에서도, 대법을 실증하는 중에서도, 또는 당신들이 부딪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다. 시간은 그래도 제한되어 있기에 매 사람에게 모두 해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부는 가급적 당신들에게 해답해 주고자 한다.(박수)

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구세력이 사악한 생명을 이용하여 대법제자에게 악행을 하는 목적은, 첫째로는 고탐(考驗)을 만들고, 둘째로는 나로 하여금 이러한 쓰레기들을 우주 중에서 청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제자의 발정념은 구세력의 배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악의 박해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하는 그 일체는 사실 모두 당신들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도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동시에 나는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수련하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줄곧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당신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어느 한 가지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수련은 인류와 인류사회에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수련 중에서 대법제자들은 서로서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악에게 박해 받고 있는 대법제자의 압력과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이 모두는 부차적인 것이다. 당신들이 한 그 일체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장래에 당신들은 되돌아보라. 당신들은 지금 누구도 내가 위대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부가 어떠한가를 당신들이 장래에 되돌아보라. 내가 한 일체는 모두 당신들을 위해 개창(開創)한 것이다. (박수)

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면 그만입니다.”라고 하면서 구(舊) 세력은 바로 나의 홍대(洪大)한 자비를 희롱하고 있다. 법은 중생에게 자비롭지만, 위엄도 함께 존재한다. 법은 또한 표준이 있으며 중생에게 불변불파(不變不破)한 것으로서, 이는 함부로 좌우지할 수 없다. 나는 중생에게 자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생명이 정말로 그 좋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며 더 자비롭다면 바로 무절제한 것으로,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은 도태하기로 정해질 것이다.

정법 중에서 구(舊) 세력의 참여로 초래된 우주 중생의 도태는 헤아릴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의 구체적 참여 중에서 채용한, 그것들이 생각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바로 모든 방대하고 거대한 천체(天體)가 모두 우주 중에서 가장 낮은 층차인 삼계로 한쪽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이는 형용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 모두가 일부분을 압축하여 삼계 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것처럼 방대한 천체, 거대한 생명들이 삼계로 진입한다면 삼계에 어떠한 상태를 조성하겠는가? 오늘날의 인류는 지난날의 역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이(變異)되었다. 심지어 지상

의 신선들마저도 거대한 압력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변화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수련상태가 조성한 것이라고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지상의 신(神)마저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생명은 우주의 이 가장 낮은 층차 중의 일체에게는 모두 일종 억제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온 후, 삼계 내 생명과 물질에는 변이가 생겼고, 조성된 파괴는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법이 인간 세상을 바로잡아 끝까지 철저하게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이제 수습할 방법이 없다. 누구도 방법이 없으며 이미 구할 방법이 없다.

그것들이 통상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바로 방대한 천체(天體), 무수한 대궁(大穹)을 한데로 압축하여 삼계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다. 방대한 생명은 층차가 높을수록 그것의 체적이 더욱 크다. 그러나 그것의 과립(顆粒),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더욱 세밀하고, 더욱 미시적이다. 그럼 이처럼 방대한 생명 그것들이 모두 한데로 내리누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우주의 가장 낮은 층차 속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강대한 장벽이 형성된다. 사실 우주 정법은 바로 손을 한 번 흔드는 사이의 일이다. 하지만 이 손을 한 번 흔드는 과정 중에서 우주의 많은

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당신들이 사부를 존경하지 않을 적에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당신들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당신들은 다만 내가 드러낸 사람의 모양만 알 뿐이다. 저쪽에서 당신들에게 나타낸 것 역시 우주 중의 형상일 뿐으로 당신들은 장래에 가서도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우주의 어떠한 생명이든 내가 누구인지 모두 도무지 알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좋게 대하거나 나쁘게 대하거나 나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구세력 그것들은 이 난 중에서 당신들을 휘멸하려고 한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또 여러분에게 정법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 좀 말하고자 한다. 여러분 보았듯이 당신들이 진상을 알리고 발정념을 하는 것, 그리고 당신들 개인수련 이 세 가지 일은, 말하자면 현재 대법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진상 알림은 사람 이 한 층의 표면 이치로 본다면 이번 사악의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고, 발정념은 더는 구제할 수 없고, 가장 더러운 그러한 생명들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 더욱 높은 이치에서 본다면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진정한 목적은 중생을 구해내어, 인류가 도

했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여태껏 직접 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존경하기 때문이다.(박수, 또 박수) 우리 일부 수련생이 일시 어리석고 심태가 바르지 못한 까닭인데,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 일단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때 구세력은 잔인한 수단을 쓸 것인바, 그것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도 나쁘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절대 당신을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들을 인도하여 당신들로 하여금 갈수록 더욱 많은 가상을 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더욱더 바르지 못하게 하며, 사부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마로 변(魔變)하게 하고, 당신들을 샷된 길로 끌어들이어 당신들로 하여금 것처럼 큰 죄를 범하게끔 할 것이다.

당신들은 정법 중 내가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중생이 저지른 역사상의 일체 죄를 탓하지 않는다! (박수) 오로지 이번 정법 중에서 정법에 대한 중생의 태도만 볼 뿐이다! (박수) 나는 어떠한 문이든 모두 열어 놓았다. 나는 이전에, 정법에 대한 태도 이 한 점마저도 보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 새로운 우주는 곧 없을 것이라고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정법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중요하다. 당신들이 정말로 이 한 점에 저촉되었을 때 구세력이 당신들을 훼멸하려 하면 나머지

시공 속의 생명이 받게 되는 감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무량무계(無量無計)한 공간 속에는 모두 자신의 시간이 있으며, 시간 차이가 크고 시간이 많기로 역시 무량무계하다. 그러므로 각개 공간의 시간에는 거대한 차이가 조성된다. 이 한 번 손을 흔드는 사이에 어떤 곳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어떤 곳은 이미 몇 십 년, 몇 백 년, 천여 년, 수만 년이 지나가며, 어떤 곳은 수억 년, 심지어 수조(兆) 년으로, 무량무계한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나 사람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단지 십몇 년의 시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는 이런 차이가 조성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각각의 공간과 시간에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계 내로 눌러 들어온 그런 방대한 천체일지라도 그것들이 사람 여기로 들어왔다면 그것들은 압축된 것이다. 사람의 사유개념으로 인식한다면 정체(整體)적으로 체적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것 속의 구조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만약 그것 속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것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 역시 것처럼 거대한 공간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법 중에서 내가 시작할 적에, 삼계 밖에서 했으며 삼계를 피했다. 왜 피했는가? 만약 내가 삼계 내에서 한다면, 사람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삼계는 우

주 정법의 초점이 되고, 핵융합과 더욱 미시적인 입자의 분열 마당으로 변해 정법의 주 전쟁터가 될 것이며, 거대한 생명과 천체의 거대한 변화는 모두 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삼계는 휘멸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계를 피한 이유이다

삼계 밖에서 법을 바로잡기 시작하여 줄곧 위로 올라가는데, 한 갈래 선이 아니라 사면팔방으로, 미시계와 거시계로 향해 동시에 확산했으며, 위로도 하고 아래로도 했다. 왜냐하면 더욱 미시적인 것 역시 더욱 거시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르는 곳마다 모두 일체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본다면 이런 방대한 확산 속도와 거대한 충격은 신이 보더라도 역시 전대미문의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르는 곳마다 일체 천체가 모두 붕괴되고 휘멸되며 재조합되고 있다. 다수가 선해(善解)되었고 어떤 것은 도태되었다. 당신들은 최근 미국 천문학계가 발견한, 서로 다른 성계(星系)의 별이 재조합되는 현상, 바로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조합되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인류는 현재, 간격을 두고 있는 서로 다른 공간의 시간이, 차이는 비록 클지라도 실은 동일한 하나의 큰 시간 속에 있으며, 공간 사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당신들을 제도하는 과정 전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사실 정법이 아니라면 일찍이 휘멸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사상표준은 이미 지옥 아래에 있다. 법을 바로잡는 것 때문에 나는 삼계 내 일체 중생의 죄를 대속(贖)했다.(박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 수련생들로 말하면, 내가 당초에 당신들을 지옥에서 건져온 것과 같다.(박수) 나는 정말로 당신들을 대신하여 당신들이 저지른 천백 년의 죄를 감당했다. 단지 이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로써 또 당신들을 제도하여 신(神)으로 성취되게 하려고 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 온갖 고심을 했으며, 동시에 당신들이 것처럼 높은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것처럼 높은 신의 영예와 당신들에게 것처럼 높은 층차에서 갖춰야 할 일체 복을 주려고 한다. (박수) 천지개벽 이래 어떠한 신도 감히 이렇게 하지 못했고,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있어본 적이 없다.

비록 구세력이 이 일을 좌우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당신들은 아는가? 구세력의 일체 생명은 나에게 탄복하기가 그야말로 오체투지(五體投地)이다! (박수) 비록 그것들이 나의 정법에 일부 장애를 만들기는

것이 바로 우주 중 생명의 가장 큰 선념(善念)이다.(박수) 그러나 구세력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근본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그것들이 갖고자 하는 그 일체에 따라 원용했는데, 모두 거꾸로 되었다. 나는 그것들에게 너무 큰 죄를 매기려 하지 않으며, 이 시점에서 나는 무슨 죄명을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방금 말한 이러한 법은 모두 하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부로서 내심으로 말한다면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내가 당초 당신들을 제도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욕했다. 강의를 들을 적에도 욕을 하면서 나의 강의를 들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바로 당신들을 제도했다.(박수)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사부에게 어떻게 하든 사부는 마음속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어떤 우주 층차의 요소에 의해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들이 사부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구세력은 이를 빌미로 틈을 타 당신들을 궤멸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들이 당신들을 궤멸할 수 있는 최대의 약점을 잡았기

이의 간격 때문에 시간구역이 다르게 획정되었을 뿐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일체는 모두 이렇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고 재조합 되는 그러한 과정은 지극히 홍대하고 지극히 미시적인 것으로서, 세밀하고도 오묘하고, 미시적이고도 정밀한바, 이를 데 없이 복잡하고 큰 궁체(穹體)는 거대한 신(神)마저도 경탄케 한다. 이렇다 할지라도 정법지세는 아주 빨리 완성되며, 일순간에 지나가 무엇이든 모두 완료할 뿐만 아니라 진선진미(盡善盡美)할 것이다. 그러나 삼계로 압축되어 내려온 이 한 부분은 위와 연대(連帶)적 일체이며 한테로 연계된 것으로서 그것들의 거대한 체적 내의 공간은 굉장히 넓다. 내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그 방대한 생명 그것의 구성 표면에서부터 그것의 가장 미시적인 데까지, 말하자면 그것 자신의 이 내부 거리는 하나의 방대한 신의 일생으로도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의 일생은 얼마나 긴 것인가, 바로 이처럼 거대하다. 그러나 정법 중에서는 일순간에 지나가며 몹시 빠르다. 사람의 인식으로 본다면, 그것들은 삼계 내에서 형용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압축되었다. 하지만 그것의 시간, 공간, 구조는 위의 것과 같다. 위에서 거대한 한 층을 꿰뚫고 지나갔다면 아래에서

도 상응한 것으로 같은 시간에 얇디얇은 그런 작은 한 층을 통과한다. 삼계로 압축되어 들어온 대궁천체(大穹天體)는 매우 많다. 그 중에 삼계로 따라 들어온 생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정법 중에서 우주의 위와 미시계를 보면 빠르기가 돌비맹진(突飛猛進)이다. 그 한 층의 인식으로 비유한다면 빠른 속도가 그 한 층의 레이저 빛의 폭발보다도 더 빠르다. 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언어로 형용하였다. 위에는 방대하기가 끝없는 천체가 법에 의해 바로잡혔지만 사람 여기에서는 마치 한 층의 얇디얇은 껍질이 벗겨진 것과 같다. 여러분은 내가 말한 뜻을 알아듣겠는가?

무엇 때문에 정법이 삼계 내에서 표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이처럼 느린가? 바로 이 원인이다. 정법이 인간에게로 되돌아오면 우주 위쪽의 일체 우주요소와 생명 역시 전부 끝나게 된다. 이는 동보(同步)인 것이며, 동일한 시간에 완성된다. 위에서 정법이 끝나면 우리 삼계 여기는 곧바로 돌파된다. 나는 이것을 또 다른 한 각도에서 말했다. 다시 말해서 정법이 시작할 적에 왜 내가 삼계 내에서 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바이다. 어떤 수련생들은 또 생각할 것이다.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배치를 승인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왜 사부님께서 한순간에 구세력을

내가 이 문제를 말할 적에 나는 또 하나의 대단히 큰 이치를 말했다. 사실 이 우주의 중생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법을 바로잡고 있으며, 내가 누구이든 내가 법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구세력에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되며,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모두 당신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를, 당신들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나 역시 수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당신들은 알고 있다. 당신들이 한 일을 뒤집어 보면, 당신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더욱 높은 층차에서 말한다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이 개념마저 없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우주의 선택이다. 내가 오늘날 정법 중에서 한 일체, 내가 갖고자 한 일체는 명백히 말하면 바로 미래 우주의 선택이며, 바로 미래 우주의 수 요이다.(박수) 구 우주의 생명으로서 일체 생명의 요소를 포함하여 정법 이 일에서, 나의 선택 중에서, 모든 생명들이 모두 내가 선택한 대로 그것을 원용(圓容)하고, 당신들의 가장 좋은 방법을 내놓으며,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에 따라 그것을 원용하는, 이

똑바로 알리는 신심과 발정념의 신심을 복돋우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절대 당신이 본 그 아주 낮은, 무량무제한 층차에서 가장 낮은 그 몇 개 층차 중의 현상을 우주 정법의 근본적인 정황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법 중의 일체는 어느 한 층차에서든, 같지 않은 그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아는가? 단지 이 하나의 수련 문제만 하더라도 우주의 낮은 층에서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고층차에 이르면 간단한 것으로 수련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오로지 업력을 없애는 개념만 있을 뿐이다. 더욱 높은 층에서 말한다면 모든 번거로움은 단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 높은 층에서는 무슨 소업이요, 무슨 고생이요, 무슨 수련이요 하는 이러한 개념이 없으며 바로 선택이다! 우주의 고층차는 바로 이런 하나의 이치이며, 보아서 누가 되면 바로 그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이치이다. 수련이라고? 우리들은 수련을 배치하지 않았다. 무엇이 수련인가? 우리들은 그를 깨끗이 씻어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면서 깨끗이 씻는데 바로 깨끗이 씻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층차 중에서는 길을 닦고, 번거로워하고, 고생하고, 소업하고, 수련을 하는 등 이렇게 닦고 저렇게 연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훼손해 버리지 않으시는가?’ 사부는 할 수 있다. 더 크더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정법 중에서 방대하고 거대한 에너지를 이동시켜 삼계 여기에서 한다면 마치 원자탄으로 모기를 치는 것처럼 힘을 쓸 수가 없다. 만약 내가 방대한 에너지를 이동해 온다면 마치 삼계 여기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그것들이 삼계로 진입해 왔지만, 그것들의 거대한 체적은 아직도 위에 있고, 압축해 들어온 것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므로 내가 그것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면 위와 연계된 더욱 큰 체적은 끊임없이 보충해 들어올 것이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여기로 압축해 들어올 것이다. 기타 천체 역시 이러할 것이며 압축되어 들어오는 천체는 릴레이 하듯 끊임없이 여기로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대한 천체와 생명이 모두 끊임없이 여기로 올 것이고, 여기는 일체 입자의 분열마당과 같게 될 것이며, 우주의 제일 초점으로 될 것이다. 나의 힘 역시 하나의 방대한 체적으로서 이렇게 역량이 크지만, 요만한 한 점에는 힘이 있다 해도 쓰지 못하는바, 아주 긴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최후에 설령 정말 그것들을 돌파해 끝장낼 수 있어 일체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류 여기, 삼계 여기

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 한 차례 거대한 충격에 더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내가 직접 여기에서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또 왜 나는 직접 삼계 내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즉시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제거하면 그것들이 끊임없이 막아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한 점에서 할 수 없다. 정법은 정체(整體)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사람 여기만을 중히 여길 수 없다. 만약 이로 인하여 홍대(洪大)한 궁체(穹體) 최후의 일체 요소를 구도(救度)하는 것이 지체된다면 더욱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도 이전에 들은 바 있고 사부도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정법 전반 이 일에서 나는 속인 여기에도 대량의 공(功)을 남겨놓았다. 이는 수련생들의 수련과 법의 실증을 보장함에 문제가 없으며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구세력이 좌우지할 수 있단 말인가? 삼계 내로 내려 들어온 일체 생명은 모두 구세력이기에, 내가 만일 특수하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장벽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일어나 저항하며 막아설 것이다. 내가

왕(王), 주(主)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일체 우주 생명과 각종 요소의 존재(存在)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는 작디작은 당신을 포함한다. 물론 나 역시 수련생, 당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말 속에서 나는 당신들의 마음과 무서운 추세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본 것은 정말로 너무나 낮으며 어떤 것은 전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는 모두 생각이 바르지 않아 나타난 가상(假相)이다.

내가 방금 말했지만, 우주의 층차는 거의 무량무계(無量無計)하다. 하지만 최고층의 영향하에 있는 그것들 이하의 모든 무량무계한 층차는 사람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부동한 층차 중의 표현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표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방대하겠는가. 어느 한 층차 중의 표현은 모두 그 한 층차 중의 이치이며 모두 그 한 층차 중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어느 한 층차 중에서 본 광경이 모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내가 많은 수련생들에게 부동한 층차 중에서 나타나는 정법 중의 일부 현상을 보도록 한 것은 정법에 대한 여러분의 신심(信心)을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법 공부를 잘 하고 수련에 정진하는 당신들의 신심을 북돋우며, 진상을

라고 한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는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나는 일역의 대법제자(大法徒)가 있는데, 때 제자들 모두에게 나, 이 주체가 친히 어떻게 수련 하라고 알려주며 돌봐줘야 한다면, 당신들 개개인이 만나 게 되는 문제를 모두 직접 나에게 문의한다면, 당신들 개 개인의 공의 연화, 당신들 세계의 원만, 당신들의 소업, 당신들의 일체의 일체를 모두 나, 이 주체가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법정 인간의 최후의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기 전에 이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것처럼 많은 수련생들이 또 나를 만나지 못 하는데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 법이 있으므로 나는 비로소 당신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모시라고 알려주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나는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 겠다. 이 한 부의 법,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나는 나의 거대한 능력을 이 한 부의 법 안에 넣었다. 그러므로 이 한 부의 법은 당신들에게 무엇이든 모두 해줄 수 있다. (잠깐 멈춤, 박수) 또 어떤 수련생, 극소수의 수련생은 똑똑히 분간하지 못한 탓으로, 마치 내가 앞에서 나 자신의 정황을 말한 것처럼 사부에게 불경하며 감히 법이 얼마나 높고, 나 이 사부가 어떠어떠하다고 담론하기 시작한다. 그 한 부의 법은 일체 홍대궁체(洪太穹體)의 무량한

기어코 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거기에서 막아설 것이다.

이전에 내가 중국의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법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친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의 업력은 대단히 컸다. 내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줄 때, 구세력은 내가 그들을 잘 치료해주지 못하게 했다. 구세력이 막아서면서 취한 방법은, 구세력이 배치한 무수하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로 하여금 즉시 그 사람의 병소 부위를 막아서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작게 변한다. 어떤 때에 대법제자들은 눈앞으로 아주 밝은 셋별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을 텐데 바로 그것이다. 그것들은 아주 작게 변하지만, 밀도는 도리어 상당히 높다. 그것들은 한데로 뻑뻑하게 모여들어 그 병소 부위를 막아섰다. 사실 그것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단번에 그것들을 한 손에 움켜잡고 쳐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정법 중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바, 내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모두 바른 것이다. 당신들은 사부가 한 이 한 마디 말을 기억하라. 즉 내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모두 바른 것이며 처리된 것들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박수)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선택이며 미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한 속인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이러한 신들을 모두 내친다면, 내가 내친 즉시 과위가 잘리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새로운 우주의 이치를 보지 못하므로, 그 구(舊) 우주의 이치를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기에 막아섰다. 한 무리를 제거하면 또 한 무리가 왔으며 끊임없이 보충했다. 사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비록 그것들이 정법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단지 한 속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것처럼 많은 신들을 훼손시킬 수 없었다.

내가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정법 중에서 허다한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구세력이 낮은 층과 높은 층을 결합해 방대한 밀도로 막아서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나는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다. 만일 내가 돌파하려 한다면 거대한 에너지를 움직여 그것들을 철저히하고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우주 중의 거대한 일체 물질이 여기에 쌓인 것이라 즉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물론 이번 정법 중에서 수련생들이 만약 바르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수련생들이 바르게 수련하지 못하면 내가 우주의 이쪽, 삼계 내에 남겨놓은 공과 에너지가 일을 할 때, 구세력에 저촉되고 지장을 주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수련생의 정신(正信), 정념(正念)을 심하게 파괴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것들을 반드시 훼손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모두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언급함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일부 개별 수련생, 당신은 절대 이로 인해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농담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한쪽 발을 허공에 디디고 있으며 벌써 좀 이지적이지 못한데, 극소수의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나는 방금 나의 정황을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바로 소수의 수련생들 중에서 최근 일부 부정확한 상태가 나타났으며 문제 역시 아주 심각한데, 역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러분들의 층차가 제고되었고 사부가 당신들이 머지않아 성취할 과위를 말해 줌으로써 답도 커졌고 스스로도 견실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다만, 형용할 합당한 언어가 없기에 사람의 이 아주 낮은 언어로 형용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부님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법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법을 스승으로 모시자.”라고 제의한다.

물론 내가 당신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모시라고 한 이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모시

많은 일을 했다. 그것들은 비단 그런 일들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주 중 참여하지 않은 거대한 우주 생명들에게 그것들의 소행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되도록 좀 원활(圓滑)하게 하고자 했다. 그것들은 나의 일부 물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부 공(功)을 이용하여 그것들의 영향 아래서 사부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부처의 형상이었다. 당신들을 혼란케 하지 않으려고 나는 이전에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즉 그것들의 목적은 파괴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말에 의하면 나를 도와 정면적인 작용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구세력이 배치한 두 부분이다. 한 부분은 부면(負面) 작용을 하고 한 부분은 정면(正面) 작용을 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수련생 체내에 진입하여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나타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부님이시네!”라고 말하며 그것을 사부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배치한 것이 아니며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 역시 그것들을 승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세력이 배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이 자체가 바로 우주가 패괴(敗壞)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보게 되면, 수련생의 정념에 착각이 생겨

수련생에게 바르게 걸어 그것들에게 무슨 빌미를 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그것들이 큰 약점을 잡아 쥐기만 하면 당신들을 궤멸하려 할 것이다. 특히 최후에 이르러 그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빌미를 잡지 못하면 감히 박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들 역시 법을 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소멸할 필요 없이 그 구 우주의 이치가 그것들을 소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 생명이며, 근본적으로 그 원래의 이치를 절대적으로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다른 하나의 문제, 사부는 어떤 정황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나는 방금 당신들에게 말했다. 우주 천체 최후의 그러한 요소들이 내가 삼계를 피해서 할 때 그것들은 또 틈을 타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의 표면적인 육신을 포함한 저쪽의 신체(神體)와 방대한 공(功)에까지도, 그것들의 거대하고도 많은, 아직 법이 바로잡히지 않은 이러한 생명들을 이용하여 일종의 간격을 조성하게 했다. 이런 간격은 우리들이 하나의 물체를 놓고 그것을 갈라놓는 개념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일체의 미시적인 데서 생기는 일로, 보기에는 마치 모든 틈새에 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것

들의 층차와 경계가 있으며 또한 그것들의 층차 아래의 입자와는 함께 섞이지 않는다. 그러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공간과 시간의 존재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런 최고층의 수많은 방대한 천체는 삼계 내의 일체 입자의 틈새로 진입할 때, 원래의 공간거리와 시간의 장단(長短)을 개변해야 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무수한 배수로 늘어났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은 아득하게 먼 공간과 기나긴 시간으로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다. 구세력은 이렇게 이런 격차의 보호 장벽하에서 그것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것들이 사람을 교란하고 사람의 사상을 교란함은 단지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바, 그것들은 인류의 신체를 통과할 수 있다. 고층의 요소가 인체표면을 억제했을 때 그러한 구세력의 신(神)은 보호를 받으면서 속인의 신체를 통과하여 다닐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인체 표면을 보면 이 사람의 형태와 피육(皮肉) 조직은 아주 세밀하다. 큰 배수로 된 대형 현미경으로 인체를 보면 입자와 입자로 구성된 인체는 모두 마치 모래처럼 성글며 많은 틈새가 있다. 만약 사람이 그러한 기술이 있어 더욱 확대하여 볼 수 있다면 틈은 사람이 놀랄 지경으로 클 것이다. 더욱 미시

않기 위해 우주 중생의 명을 모두 나 여기에 거둬들인 것 외에, 나 여기에는 외래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주 중의 모든 가짜 나(我)는 모두 구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정면(正面)적인 작용을 하든, 부면(負面)적인 작용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이다. 내 생각에 이 문제를 나는 당신들에게 투철하게 말했다.

비록 내가 여기에 왔지만, 누구도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미시적인지 보아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단지 사람 신체의 가장 표면적인 입자 이 한 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우주 중의 매 하나의 물체, 매 하나의 물건은 모두 한 층, 한 층의 부동(不同)한 미립자로 표면까지 구성되었다. 이러한 것을 신은 모두 볼 수 있으며 그것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다. 마치 한 갈래의 길을 가듯 조금씩 연장해가며 찾아간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는 안에서부터 왔고 밖에서부터 왔으며, 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와서 유(有)를 형성하여, 창궁(蒼穹)의 정상에 나타났다. 또 그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삼계의 제일 표면으로 내려왔는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생명이 없다.

이전에 또 이런 정황이 있었다. 구세력 그것들은 내가 정법 이 일을 하는 데에 매우 많은 수작을 부렸고, 매우

서 위에서 말한 이런 현상은 사람에게 일종 착각을 조성하며 일부 착오적인 인식이 생기게 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는 어찌된 영문인가를 알려주었다.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이 지금 사람의 육안으로 본 나이자, 가장 표면적인 내가 바로 진정한 나 리홍쓰(李洪志)이다. 당신들이 본 저쪽은 나의 불체(佛體)이고 당신들이 본 나의 지금의 가장 표면적인 것이 바로 나 리홍쓰(李洪志)의 제일 주체이다.(박수)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중생들이 모두 구도되게끔 하기 위해, 내가 가장 낮은 층으로 왔기 때문이다.(박수)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엇을 보았든지 상관하지 말라. 곧 나의 법신을 보았고 나의 功身(공선)을 보았고 내 신체의 고층차의 어떤 한 부분을 보았다 해도 당신들은 어떠한 마음이 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나의 이 표면적인 주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 여기의 가장 표면적인 인피(人皮)가 바로 제일 주체이다.(박수) 하지만 사부는 속인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세상 사람의 이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구세력은 나 여기에서 일부 수작을 부리려 하고 끊임없이 일부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대법제자들의 정념에 영향을 주지

적인 개념에서 입자의 이러한 틈은 크기가 그야말로 분자와 별 사이의 공간거리와도 같다. 이처럼 큰 거리를 더욱 더 미세적인 입자로 구성된 생명과 물질이 마음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그것이 단번에 사람의 표면으로 파고들어 표면적으로 볼 적에는 이 사람이고 미세적으로도 역시 이 사람이지만 속에는 다른 한 생명이 끼어들어 있다.

여기까지 말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은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의 수련된 부분을 모두 완전히 봉해 놓았다. 만약 대법제자가 바르게 행한다면 아직 수련이 완료되지 않은 표면 부분일지라도 아무나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는 구 생명도 구 우주의 법을 감히 난잡하게 할 수 없으며, 또 하나는 당신들은 사부가 있고 호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들이 표면 사람 일면의 집착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부와 호법신은 난처해진다. 만약 정념이 강하다면 사부와 호법신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모두 할 수가 있다.

나의 정황은 일반적인 생명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부는 정법 중에서 신체 속에 일체 우주 중생의 명(命)과 각종 요소의 명(命)을 받아들였다. 첫째로는 정법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중생의 명이 모두 나 여기

에 있으면 누구도 우주에 위협을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둘째로는 임의의 생명과 각종 우주요소로 하여금 정법으로부터 도피하지 못하게끔 한 것이며, 셋째로는 정법 중에서 그것들의 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사부의 온 몸은 모두 다양한 크기의 각양각색의 우주 각층 생명과 도신불(道神佛)의 형상이다. 또한, 사람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부에 대해 교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작용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내가 중생의 명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일부는 속인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수련생은 천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만약 心性(썸썸)에 문제가 있는 어떤 수련생이 본다면 제멋대로 상상할 것이다.

나는 부동(不同)한 상태의 수련이 부동한 층차와 부동한 상태의 수련상황을 개창(開創)해 줌을 말했다. 천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법리상에서 깨닫고, 천목이 열린 사람은 가상(假相)의 교란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수련생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에, 아직 법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은 최고 최후의 구세력은 낮은 층의 구세력으로 하여금 공간과 시간의 차이가 늘어나는 중에서 나쁜 짓을 하도록 했다. 그것들이 정법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제자의 정신(正信)과 정념(正念)을 심각

하게 동요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한 점을 영원히 기억하라. 즉 누가 교란하든지 그것은 모두 잠시이고, 모두 가상이며, 모두 주체(主體)가 아니고, 모두가 마치 유동하는 공기와 같은 것임을. 공간 속의 각종 물질요소와 생명은 곳곳마다 모두 있으며, 많기로 헤아릴 수 없다. 그것들은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이 다 있는데, 바로 미시적인 공간과 부동(不同)한 공간의 생명이다. 아직 법에 의해 바로잡히기 전, 우주의 미시적인 신(神)은 모두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곳에 존재하는 각자(各自)의 공간 속에 있으며, 무엇이 여기에 머물고, 머물지 않고는 단지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유형무형의 요소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누구도 정념 정행하는 대법제자를 조종하지 못한다.

내가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구세력이 방대한 고층 생명과 요소로 나의 표면에다 간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나의 더욱 미시적인 부분을 갈라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생명도 나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수) 나의 더욱 미시적인 부분은 그것들로서는 영원히 볼 수 없고, 우주 중생들 역시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오로지 나 자신만이 장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